

發刊辭

긴 산통 끝에 『관악어문연구』 36집을 발간한다. 원고 모집과 출판사 선정 등의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와 정체성을 담은 논문집을 계속 발간할 수 있어 무척 다행스럽다. 한국연구재단의 막강한(?) 권위에 힘입어 국내의 크고 작은 학술 단체들의 논문집이 서열화되면서 특정 학과의 전통적인 논문집의 발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하에서도 곳곳이 관악인의 정신을 담은 『관악어문연구』가 36집의 연륜을 기록하게 되었다.

여러 어려움을 겪은 만큼 학내외 연구자의 다양한 논문을 수록하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쉽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최형용, 이진호 두 분 선생님께서 2011년 12월 15일에 있었던 국어학회 제38회 전국학술대회 집중강좌의 귀한 원고를 제공해 주셔서 겨우 논문집의 구성을 갖추게 된 점 무척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듯 준비 미흡으로 이번 호에서는 학계의 중견 연구자들의 논문이 충분히 수록되지 못한 점 참으로 송구스러울 뿐이다.

그 대신 이번 호에서는 학부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대표적 논문들을 선보인다. 이수정, 김송희, 김수영, 유혜영, 정건희 등의 논문은 학부 졸업논문 중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것으로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학부생들의 연구 수준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록 미흡하고 정제되지 못한 점이 눈에 필자라도 이들의 패기만만한 도전 의식은 대학원 공부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기념하고 축하할 만하다.

2011년은 특별히 많은 대학원생들의 우수한 논문이 배출된 한 해여서 이를 또한 기념하고자 하였다. 박사논문으로 먼저 국어학 분야에서 채숙희, 김선영, 항가이마, 안소진, 고전문학 분야에서 조성진, 안순태, 김현식, 김하라, 나수호, 김대중, 김수영, 현대문학 분야에서 김지미, 김승민, 이성희, 정주아, 김예리, 박슬기 등의 논문을 소개하는 특집을 마련하였다. 이들 중 많은 연구자들이 여러 대학의 전임교

수로 부담하여 교육과 연구에 새로운 자극을 마련해 주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 역량을 한층 기대하는 바이다. 이들 박사학위 논문뿐 아니라,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분야의 다양한 관심사의 석사논문들도 특집으로 소개하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 전공의 소장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과 관심 분야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 점도 이번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들이 박사과정에서 어떠한 발전 모습을 보여 줄 것인지를 관찰하는 것도 매우 흥미 있는 과제가 될 것이다.

『관악어문연구』는 학술적 논문집의 성격과 함께 학과 공동체의 소통의 장이라는 역할을 지닌다. 따라서 매년 시행하는 학과의 핵심 행사인 봄철 정기 학술답사의 생생한 현장을 증계한다.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전공으로 나누어 학부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전공교수들이 함께 참여한 학술답사의 보고서를 통하여, 선후배 간, 사제 간의 끈끈한 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점도 『관악어문연구』만이 보여줄 수 있는 미덕이다.

한 권의 논문집을 엮는 일은 보람과 함께 아쉬움이 남는 법이다. 이번 호의 아쉬움을 기억하여 다음 호에서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독자들 앞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1. 12.

국어국문학과장

양 승 국